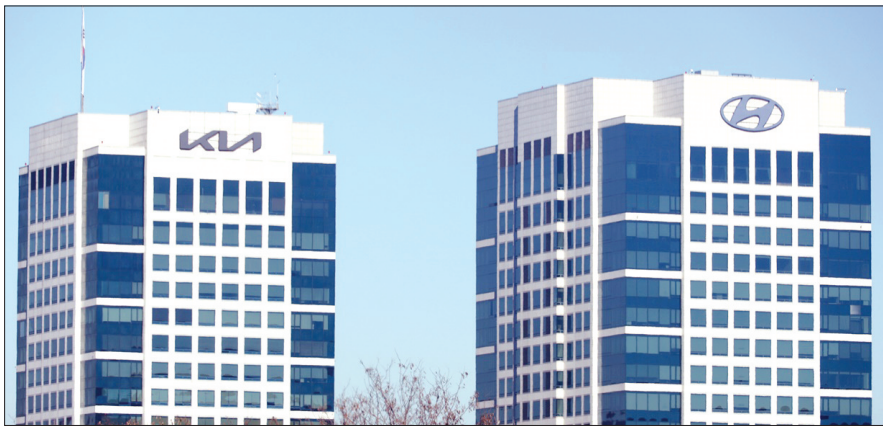


현대차, HEV 중심 실적개선… ‘생산 정상화·신차 판매’ 속도

3분기 매출 45.1조, 영업이익 2.6조
공장 파업·원자재 가격 등 부담 커져
연간 판매목표·수익성 전망치 하향

현대자동차가 올해 3분기 글로벌 판매량 감소에도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확대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생산 차질과 글로벌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연간 판매 목표와 수익성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4분기 생산 정상화와 신차 효과로 실적 반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미 관세 등 대외 변수는 부담으로 남았다.

현대차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5조 1102억원, 영업이익 2조 677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5.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5.9%로 0.5%포인트 상승했다.



현대차 양재동 본사.

/메트로신문DB

3분기 실적 개선은 친환경차 판매 구조 변화와 환율 효과가 자리했다.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매출원가율이 83.8%로 1.5%포인트 높아졌지만 판매관리비율을 10.3%로 2.0%포인트 낮추며 부담을 상쇄했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실적은

부진했다. 3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량은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국내 공장 파업 등의 영향으로 92만 71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했다. 국내 판매는 13만 1468대로 27.2% 급감했고, 해외 판매도 8.0% 줄어든 78만 9242대에 그쳤다.

현대차의 3분기 글로벌 전동화 차량(xEV, 상용 포함) 판매는 HEV 판매 호조에

도 불구하고, EV 등의 판매 물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24만 5540대를 기록했다. 이 중 EV는 6만 9117대, HEV는 16만 7414대(PHEV 제외)로 집계됐다.

특히 HEV 판매는 전년도 16만 1000여 대 대비 약 6000대 증가했다. 전체 글로벌 판매에서 전동화 차량과 HEV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6.7%, 18.2%로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2.7%포인트 상승했다.

현대차는 경영환경 악화를 반영해 연간 글로벌 도매 판매 목표를 기존 415만 8300대에서 400만대로 낮췄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 전망치도 기존 6.3~7.3%에서 5.5~6.5%로 하향 조정했다. 연간 매출 성장률 목표는 1.0~2.0%를 유지했지만 자동차 부문 투자계획은 17조 8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1조 8000억원 축소했다.

현대차는 4분기 생산 정상화와 신차 판

매 확대를 통해 반등에 나선다. 지난 9월 국내 공장 생산이 정상화된 만큼 디올 뉴아반떼와 디올 뉴 투싼 등 주요 신차를 앞세워 판매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관세 부담이 실적 개선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가이던스 조정은 본질적인 사업 경쟁력이나 수익 창출력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 차질 등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요인을 연간 전망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실적 전망 하향에도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하고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주당 2500원의 3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배당 기준일은 다음달 30일이며 지급일은 12월 30일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코치 도어·루프 에어백 등 적용… 공간 넓히고 안전 더했다

제네시스 ‘GV90 테크 데이’

플러그인 전용 eMP 플랫폼 바탕 설계
“첨단기술과 타협없는 안전으로 완성”

“GV90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첨단 기술과 타협없는 안전으로 완성된 차량입니다.”(제네시스 개발담당 허광훈 상무)

제네시스가 초대형 플러그인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90에 적용한 핵심 기술과 개발 과정을 공개했다. 개방감을 극대화한 코치 도어를 구현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힌지와 래치부터 차체 골격까지 새롭게 설계했다. 전동화 전용 플랫폼과 세계 최초 루프 에어백 등 차별화 기술을 앞세워 럭셔리 전기차의 공간 활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였다.

제네시스는 지난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GV



제네시스가 지난 28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공개한 GV90 /제네시스

90 테크 데이’를 열고 차량의 핵심 기술과 개발 과정을 공개했다. GV90에는 B필러 없이 앞뒤 도어가 독립적으로 열리는 코치 도어와 전복 사고에 대비한 루프 에어백 등 혁신 기술이 적용됐다.

GV90는 플러그인 전용 eMP(Electric Mobility Prime) 플랫폼을 처음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차체 구조와 주요 전동

화 부품 배치를 새롭게 설계해 1열부터 2열까지 바닥이 이어지는 ‘심리스 플 플랫폼’을 구현했다. 실내 공간을 넓히면서 고출력 모터와 서스펜션, 후륜 조향 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차체 구조물의 72%에는 알루미늄 경량 소재를 적용했으며, 접합부를 줄이는 할로우 캐스팅 공법으로 강성과 충돌 성

능을 높였다.

세계 최초로 적용된 루프 에어백은 전복 시 천장을 따라 펼쳐져 탑승객의 이탈과 머리 부상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약 1400mm 길이에 걸쳐 0.08초 만에 전개되도록 설계했으며, 실차 40대 평가와 300회 이상의 에어백 단품 시험 등을 거쳐 신뢰성을 검증했다.

현대차는 코치 도어와 차체 구조, 전용 플랫폼, 안전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공간과 디자인, 안전성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제네시스시험1실 정성기 실장은 “전 세계 다양한 도로와 시험장에서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성능을 빈틈없이 다듬었다”며 “차를 직접 운전해 보면 플러그인 초대형 SUV임에도 차체 거동이 매우 플랫폼하고 움직임이 날렵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엔솔, ‘BIC 2026’ 개최

12월 6일까지 공모… 미래 기술 발굴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산학 협력을 통해 미래 배터리 기술 발굴에 나선다. 소재부터 인공지능(AI)까지 연구 분야를 넓혀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연구 공모전 ‘배터리 이노베이션 콘테스트(BIC) 2026’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BIC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LG에너지솔루션 연구진이 연구과정에 참여하고 상시 피드백을 제공해 학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공모 기간은 12월 6일까지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은 BIC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BRIDGE’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안 과제의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원관희 기자

3분기 실적 발표

삼성중, 전년比 매출 20%·영업익 42% ↑

고부가선박 물량 확대… 수익성 개선

삼성중공업이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 물량 확대에 힘입어 3분기 수익성을 개선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해양플랜트 수주를 확대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3분기 잠정 실적 집계 결과 매출 3조 1504억원, 영업이익 338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42% 증가했다.

하계 휴가와 추석 연휴 등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했지만 고부가선박의 매출 반영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은 10.7%를 기록했다. 세전이익은 선물환 청산 이익 등 영업외 수익 2723억원이 반영돼 610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9조 3000억

원, 영업이익은 9365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연간 매출 목표인 12조 8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주 실적도 확대됐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LNG 운반선 20척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2기 등을 포함해 총 48척, 124억달러를 수주했다. 연간 수주 목표인 139억달러의 89%에 해당한다.

연말까지 미국 델핀 FLNG 2호기와 캐나다 웨스턴 FLNG 등 대형 해양 프로젝트의 추가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LNG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 아프리카와 중남미, 북미 등에서 FLNG 프로젝트 발주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은 변수로 꼽힌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삼성SDI, 매출 52% ‘평균’… 흑자전환 성공

매출 4조 6856억, 영업이익 4078억

삼성SDI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배터리 판매 확대에 힘입어 3분기 흑자 전환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배터리백업유닛(BBU)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추가 수주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SDI는 올해 3분기 매출 4조 6856억원, 영업이익 4078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6%, 전 분기 대비 20.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5913억원 손실)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전 분기(2038억원)보다도 두 배 수준으로 늘면서 2023년 3분기 이후 12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3422억원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부문은 매출 4조 4099억원, 영업이익 361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5.3%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ESS·BBU와 전동공구·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판매 확대가 실적을 이끌었다.

전자재료 부문은 반도체 패터닝 소재와 폴더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필름 소재 판매 증가로 매출 2757억원, 영업이익 45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18.9%, 18.3% 증가했다.

한편 삼성SDI는 4분기에도 ESS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미국 내 생산라인의 LFP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는 헝가리 생산 거점의 양산라인과 공급망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이니켈·LFP·미드니켈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앞세워 신규 수주도 확보할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가온전선

美 빅테크 케이블 공급

가온전선이 미국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

가온전선은 미국 생산법인 LSCUS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한 곳에 총 1200억 원 규모의 배전(MV)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공급도 협의 중이다.

이번 공급은 국내 기업이 단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공급하는 배전케이블 중 최대 규모다. 미국 내 복수의 AI 데이터센터(AIDC) 프로젝트에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가온전선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미국 현지 생산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규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하고 배전케이블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성과”라며 “생산능력 확대와 고객 기반 강화를 통해 북미 AIDC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